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바느질기법에 대한 연구 I

- 트임 보강을 중심으로 -

구 남 옥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강사

A Study on Sewing Methods of the Joseon Period -Focusing on Reinforcing the Opening of Clothes-

Nam-Ok Ku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투고일: 2008. 6. 17, 심사(수정)일: 2008. 6. 30, 게재확정일: 2008. 8. 15)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ewing methods used to reinforce the opening of clothes of the *Joseon* period. Through the analysis of a total of 117 clothing items of the *Joseon* perio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Most costumes of the *Joseon* period had the opening. The purpose of the opening was to allow one to put on and take off a costume, act comfortably, and turn a costume inside out. The opening was located on the Side, Center Back, *Agwi*(Side opening of pants), Wristband, Armhole, and *Godae*(the back part of the collar).

2. As the opening tended to get easily worn out, it was often reinforced. The following three methods were used to reinforce the opening of clothing items of the *Joseon* period: a method to attach a cloth such as *Dang*, Binding, and *Badae*; a method using a variety of knots; and a method by sewing stitches such as a sort of cross stitch called *Satteugi*, Prick stitch, and Loop.

3. The most frequently used reinforcing method was the one that used a knot(34 items), followed by the one by sewing *Satteugi*(27 items), and the one using *Dang*(25items). The most frequently detected location of the opening was Side(59 items), followed by *Agwi*(37 items), Wristband(19 items), and Center Back(13 items).

4. The reinforced opening made a costume more durable and elastic, decorative and neat.

Key words: clothes(복식), sewing methods(바느질기법), opening(트임), reinforce(보강)

I. 서론

조선시대의 복식유물을 살펴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성방법과 바느질방법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바느질의 경우 수작업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매우 정교할 뿐 아니라 소재와 착용 목적, 시대와 복식의 구성에 맞는 창의적인 바느질기법을 도입한 유물들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대상으로 전통 바느질법에 대해 다수의 연구¹⁾가 행해졌으나, 한 종류의 복식 유물을 분석하거나 또는 한 벌의 복식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부분 바느질법이 종류별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수한 전통 복식의 부분 바느질법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서양의복구성과 같이 우리 전통복식의 부분 바느질방법을 세목별로 종합·정리하여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 구성에 나타난 다양한 바느질기법에 대한 연구 중 하나로, 트임의 보강에 사용된 바느질기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트임의 정의와 트임이 있는 조선시대 복식을 종류별로 분석함으로써 트임의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조선시대 유물에 나타난 트임 보강 바느질 방법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였고, 3장에서 트임 처리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이를 도표화하므로 결론을 맺었다.

연구대상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출토 또는 전래되어온 조선시대 복식 중 55인의 복식 117점을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는 도록이나 논문,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트임

1. 용어정리

트임은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이지만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트임은 트다의 피동사인 트이다²⁾의 명사형 격으로서 일반적

으로 막혔던 부분이 뚫린다는 의미³⁾로 통용되고 있다.

복식용어로서 트임은 솔기를 서로 봉합하지 않고 터놓은 채 둔 기다랗게 갈라진 틈을 의미한다.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폭이 좁은 의복에 절개를 한 것으로서 입고 벗을 때 편하고, 동작의 기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장식이나 디자인을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위치는 주로 앞·뒤중심, 옆선, 목둘레, 어깨, 소매부리, 바지부리 등이며 개폐(開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다.⁴⁾

트임은 구조에 따라 크게 막힌 트임과 열린 트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막힌 트임이란 양 끝이 막혀있는 트임을 의미하며 열린 트임은 한 끝이 터있는 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트임은 막힌 트임과 열린 트임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트임이 있는 조선시대 복식의 종류

조선시대 복식은 여유 분량이 많고 통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식에 트임이 있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구장복이나 적의·심의·철릭·두루마기[周衣]⁵⁾·장의 등에 트임이 없다.

트임이 있는 복식을 살펴보면, 먼저 예복(禮服) 중에서 제복·조복·단령·원삼·당의 등에 옆트임이 있으며 제복과 조복의 중단에도 옆트임 또는 뒤트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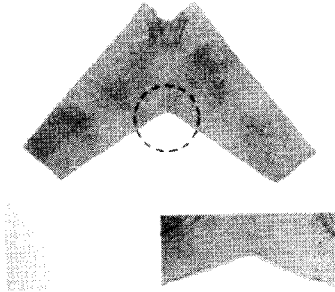
편복(便服)으로는 직령과 중치막의 옆이 트여있으며 창의와 협수·동다리·사규삼 등은 뒤트임·옆트임이 공존한다. 도포의 경우 무가 뒷자락으로 넘어가 고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뒤트임이 있는 것이나 이것을 뒷자락으로 덮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옆이 트인 것 같이 보인다. 액주름의 경우 넓은 폭에도 불구하고 옆 또는 뒤중심의 일부가 트여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⁶⁾

포 위에 걸치는 덧옷 중 답호와 방령, 배자 등에 옆트임이 있으며, 전복의 경우 옆과 뒤가 다 트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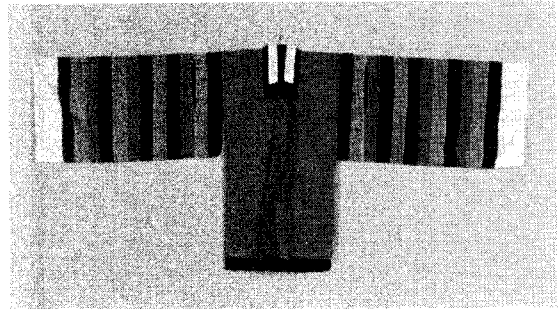
저고리·적삼·한삼 중에도 옆트임을 발견할 수 있고 조선전기 남자바지와 여자 바지, 그리고 단속곳의 경우도 옆에 아귀를 만들었다. 트임이 없는 사복바지도 가랑이⁷⁾ <그림 1>⁸⁾나 사복선 일부를 터놓은 것⁹⁾

<표 1> 연구대상 목록

No	착용자	생몰년도	복식수	복식종류	출 처
1	김홍조	1461-1528	3	바지3	판결사 김홍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1998)
2	고운	1479-1530	1	바지	하천고운출토유물 (2000)
3	송세훈배위 강릉김씨	1479-1552 ?	1	단속곳	한국복식 25 (2007)
4	홍계강	1550년대	1	바지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1988)
5	벽진이씨	?-1585	3	직령, 액주름2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1988)
6	정응두	1508-1572	1	액주름	한국복식 9 (1991)
7	이석명	1513-1583	1	액주름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0)
8	신지정	1519-1528	1	직령	한국복식 17 (1999)
9	이언중	1524-1582	1	직령	한국복식 20 (2002)
10	정휴복	1529-1604	1	액주름	조선시대 액주름의 조형적 특징 연구 (2007)
11	심수륜	1534-1589	5	주의, 바지4	심수륜묘 출토복식 (2004)
12	조 경	1541-1609	2	방령, 바지	조경묘 출토유물 (2003)
13	강대호	1541-1624	7	방령, 도포2, 액주름4	한국복식 23 (2005)
14	이용해	1547-1626	5	방령, 창의3, 철릭	이용해 출토복식 연구 (2004)
15	김여은	1550~1592	10	소창의, 창의, 중치막7, 저고리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2005)
16	고여우	?1560-1630	3	단속곳3	한국복식 15 (1997)
17	장기정씨	1565-1614	1	저고리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2000)
18	김확	1572-1633	20	창의3, 도포3, 저고리, 중치막13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2007)
19	김확배위 동래정씨	1572-1633 ?	1	원삼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2007)
20	동래정씨	1574-1669	2	담호2	한국복식 8 (1990)
21	진주하씨	?1580-1646	2	중치막, 단속곳	진주하씨묘 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1991)
22	일선문씨	16세기	1	저고리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용태 묘 발굴조사보고서 (1996)
23	연안김씨	16세기	1	바지	연안김씨묘 출토복식 (2005)
24	평산신씨	16세기	2	단속곳, 저고리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2005)
25	진주류씨	16세기중후반	1	저고리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2006)
26	순천김씨	16세기 후반	1	누비바지	문화재대관 (2006)
27	고분상	임란전후	1	저고리	제주고씨 선산분묘 출토복식 연구 (2007)
28	문화유씨	1615-1685	1	액주름	한국복식 10 (1992)
29	최원립	1618-1690	2	전복, 협수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2006)
30	정재후	1624-1695	1	중치막	동래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3)
31	이익정	1699-1782	1	조복	한국복식 19 (2001)
32	파평윤씨	1735-1754	1	바지	한국복식 21 (2003)
33	조대비하사품	1808-1890	1	원삼	문화재대관 (2006)
34	홍완군	1815-1848	1	철릭	문화재대관 (2006)
35	김병국일가	1818-1906	1	구군복	안동김씨 분묘 조사 발굴 보고서 (1989)
36	김병국	1819-1933	1	조복	안동김씨 분묘 조사 발굴 보고서 (1989)
37	고중	1852-1919	1	구장복	문화재대관 (2006)
38	백신옥 시조모	1853-?	3	바지3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1998)
39	윤용구	1853-1936	1	구군복	문화재대관 (2006)
40	정은	19세기	1	조복	문화재대관 (2006)
41	황수영 장모	19세기	1	바지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1998)
42	전래유물	19세기	1	동다리	명선 중 (2004)
43	완순군	19세기	1	조복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2003)
44	정원용	19세기	1	조복	문화재대관 (2006)
45	전래유물	19세기	1	전복	명선 중 (2004)
46	광화당	1887-1970	1	원삼	문화재대관 (2006)
47	박정은 기증	1910년대	3	바지3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1998)
48	순정효황후	1919	3	원삼2, 적의	문화재대관 (2006)
49	전래유물	1920년대	1	바지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2005)
50	전래유물	1920년대	1	단속곳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2003)
51	전래유물	1920년대	1	바지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2003)
52	왕손복	1922	1	전복	조선조후기궁중복식 (2002)
53	전래유물	20세기 초	1	바지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2005)
54	전래유물	20세기?	1	개구멍바지	우리 옷과 장신구 (2003)
55	안민현 기증	20세기?	4	바지 4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1998)



〈그림 1〉 이익정 바지 명선 중. (2004), p.154



〈그림 2〉 무복 원삼 경기대학교박물관소장



〈그림 3〉 김득신 투전 조선시대 풍속화, (2002), p. 198.



〈그림 4〉 구군복 착용도 한국군복의 발달사연구, (1998), p. 300.



〈그림 5〉 전(傳) 신윤복 대궐도 조선시대 풍속화, (2002), p. 209.

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용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복(巫服)의 경우에도 원삼과 철릭, 장삼의 소매 중간부분에 〈그림 2〉¹⁰⁾와 같이 굽을 할 때 손을 내놓기 위한 트임을 준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3.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트임의 기능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트임의 기능은 크게 착의(着衣)기능과 동작 편의의 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착의기능

옷을 입고 벗기 위한 목적으로 트임을 만드는 것

을 뜻한다.

고대·수구·부리와 같이 목·손과 발을 내놓기 위한 개구부와 바지의 아귀와 같이 옆선을 절개하거나 주름을 잡지 않고 벌려 놓아 입고 벗기 편리하게 만든 것도 있다.

2) 동작 편의의 기능

(1) 좌식(坐式)

조선시대 좌식생활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이어온 온돌이 바탕이 된 주거문화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복식도 이에 영향을 받아 입식생활에 비해 여유 많은 넉넉한 형태와 옆이나 뒤에 트임이 고안된 복식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3〉¹¹⁾은 김득신의 풍속

화 중 '투전'이다. 바닥에 걸가부좌(結跏趺坐)를 하고 투전에 몰두하는 남자들을 보면 창 의 옆트임 사이로 다리가 노출되어 옷매무새의 흐트러짐 없이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보행(步行)

폭이 좁은 옷에 있는 트임은 보행에 편의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트임을 이용하여 옷의 착장방식에 변화를 주어 동작 기능성이 더욱 향상되는 디자인으로 재구성이 가능하다.

군복과 같이 행동이 민첩해야 할 경우 <그림 4>¹²⁾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동다리와 전복의 뒤트임을 이용하여 양 자락을 다리에 끈으로 묶으므로 옷이 걸들지 않아 몸가짐이 간편해지고 움직임이 편해진다.

또한 <그림 5>¹³⁾와 같이 씨름할 때에도 자락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창 의의 앞자락을 뒤로 보내 묶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착의(着衣) 모습은 여러 풍속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¹⁴⁾ 주로 양반의 시중을 드는 중인 이하 계층이 이러한 활동적인 차림을 하고 있다.

(3) 용변(用便)

용변 시 옷을 탈의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사폭 바지의 가랑이 또는 사폭선에 창구멍을 낸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¹⁵⁾

특히 개성지방에서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용변을 돕기 위해 개구멍바지라 하여 밀이 트인 누비바지를 입혔다.¹⁶⁾ 또한 기저귀를 떼지 않은 아기용으로 가랑이와 뒷부분을 터진 풍차바지를 입혀서 기저귀 같이 채우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Ⅲ. 유물에 나타난 트임의 보강 방법

1. 트임을 보강한 바느질 방법

트임을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옷감·매듭·바느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옷감을 이용하는 방법

(1) 당

당(襠)¹⁷⁾은 기능성을 향상 시키는 전통복식의 부분 바느질 중 하나이다. 평면구성 의복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많은 곳이나 트임이 있는 곳에 활동과 착용의 편리를 위해 덧댄 부위를 의미한다. 무와 같은 의미로 통용¹⁸⁾되기 때문에 삼각무¹⁹⁾, 거드랑이무²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당은 트임의 끝에 정사각형의 옷감을 대각으로 접어 바느질하여 직각삼각형으로 완성된다.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아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인 상의류의 거드랑이와 바지의 가랑이 등에 주로 부착되어 활동을 용이하게 하며 옷이 터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다른 색의 옷감으로 당을 만들어 장식 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

트임에 나타난 당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총 25점의 유물의 트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주로 여자 바지의 아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아귀의 끝에 당을 달아 신축성을 부여하며 파열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해(1547-1626) 유물 중 창 의와 방령의 트임에서도 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창 의의 경우 뒤 트임이 시작되는 부분에, 방령의 옆트임에 당을 대어 자락이 벌어질 때 솔기가 더 터지지 않게 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²¹⁾

경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20세기 초 바지유물을 보면 독특한 바느질을 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소재 능화문사 단속곳의 경우 아귀에 연분홍 당을 대었으며²²⁾, 연분홍 생고사 단속곳은 가랑이 사이에 터짐을 막기 위하여 당을 달았다.²³⁾ 겹바지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남성용 사폭바지와 같으나 사폭선이 있는 바지의 경우 마루폭과 큰사폭 연결선에 트임을 주고 매듭단추 2개를 단 함경도식 바지이다. 트임의 끝부분에 당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2) 선

선(線)은 옷의 가장자리를 다른 형점으로 가늘게 싸서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3> 당

복식	부분	사진	착용자	생물년도	출처
바지	아귀		홍계강	?1450년대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p. 337.
바지3	아귀		김흠조	1461-1528	판결사김흠조조선생합장묘발굴조사보고서, pp. 295-6.
바지	아귀		고운	1479-1530	하천고운출토유물 p. 65.
단속곳	아귀		송세훈 배위 강릉김씨	1479-1552 ?	한국복식 25 p. 69.
단속곳	아귀		평산신씨	16세기	금선단 치마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p. 172.
바지	아귀		조경	1529-1604	조경묘출토유물의, p. 68.
바지4	아귀		심수륜	1534-1589	심수륜묘 출토복식, p. 154.
창의2	뒤트임		이응해	1547-1626	이응해 출토복식 연구, pp. 148-149.
방령	옆트임		이응해	1547-1626	이응해 출토복식 연구, p. 126.
단속곳3	아귀		고여우	?1560-1630	한국복식 제 15호, pp. 89-90.
단속곳	아귀		진주하씨	?1580-1646	진주하씨묘 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p. 121.
누비바지	아귀		순천김씨	16세기 후반	문화재대관, p. 279.
바지	사폭선 트임		전래유물	1920년대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 79.
바지	아귀		전래유물	1920년대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p. 199.
단속곳	아귀		전래유물	1920년대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 78.
단속곳	가랑이		전래유물	20세기 초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p. 201.

선은 제색 보다는 남색·홍색 또는 옥색 등을 둘러서 기능성과 장식미를 함께 증진시킨다.







선을 대어 트임을 보강한 유물은 다수 존재하나 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총 13점의 유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3> 모두 바지의 아귀 트임 보강이었다.

파평윤씨(1735-1754)의 바지는 옆선을 절개하여


아귀를 만든 다음 트임 끝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덧단을 대었다.²⁵⁾

백신옥 시조모의 바지 3점과 황수영 장모의 바지, 안민현교수 그리고 박정온이 기증한 바지는 모두 개성지방의 유물로 아귀부분의 주름을 잡지 않고 터놓은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두 아귀에 전체적으로

<표 4> 선

복식	부분	사진	착용자	생몰년도	출처
바지	아귀		파평윤씨	1735-1754	한국복식, 21, p. 100.
바지3	아귀		백신옥 시조모	1853-?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p. 72.
바지	아귀		황수영 장모	19세기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p. 74.
바지 3	아귀		박정운 기증	1910년대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p. 117.
바지 4	아귀		안민현 기증	?20세기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p. 113.
개구멍바지	아귀		전래유물	?20세기	우리 옷과 장신구, p. 271.

<표 5> 바대

복식	부분	사진	착용자	생몰년도	출처
저고리	옆트임		일선문씨	16세기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보고서, p. 200.

선을 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옆구리에 단 친다'고 하였다²⁶⁾ 한다. 특히 백신옥 시조모의 바지는 오른쪽 허리에 있는 아귀에 청색으로 선이 쳐져 있고 진분홍색 보조 비단 끈이 달려 있어²⁷⁾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옷에도 수준 높은 멋을 부린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대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개구멍바지의 경우도 아귀에 푸른색으로 선을 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바대

바대란 옷의 잘해지는 부분에 덧대는 형질 조각을 뜻하며 힘받이천 또는 덧대기라고도 한다. 바대는 옷감을 보호하며 무게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어 지지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로 홑옷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트임의 보강에 바대가 사용된 것은 매우 드물어 <표 4>에 나타난 대로 홑장저고리의 옆트임에서 하

나 발견할 수 있었다. 거드랑이 트임의 사직부위 안쪽에 트임이 찢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직사각형 거드랑이 안쪽 트임바대를 달았는데 옷감의 손상을 막기 위한 배려의 지혜가 돋보인다.²⁸⁾

2) 매듭을 이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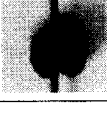














(1) 매듭

옷감을 길게 말아 매듭을 만들고 여분의 끈을 트임의 양쪽에 갈라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매듭을 맺어 부착하는 것이 끈만 이용하는 것보다 더 견고한 분 아니라 미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듭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혹 옷과 다른 자색의 매듭을 달아 장식성과 실용성을 더 한 것도 있었다.²⁹⁾

매듭을 이용하여 트임을 보강한 유물은 총 34점 찾을 수 있었다.<표 5> 이용된 매듭은 움매듭·도래매듭·가락지매듭·연봉매듭 등 4 종류이며, 매듭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6점³⁰⁾ 있었다.

움매듭은 끈에 묶음을 하나 하여 트임의 좌우에

<표 6> 매듭

종류	복식	부분	사 진	작 용 자	생몰년도	출 처
 옥매듭	창의	옆트임		이응해	1547-1626	이응해출토복식의 직령포와 창의에 관한 연구, p. 48.
	철릭	수구		이응해	1547-1626	이응해 출토복식 연구, p. 131.
 도래매듭	액주름2	옆트임		강대호	1541-1624	한국복식, 23, pp. 92-96.
	주의	옆트임		심수륜	1534-1589	심수륜묘 출토복식, p. 198.
 가락지매듭	직령	옆트임		벽진이씨	?-1585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pp. 233-234.
	액주름	옆트임		벽진이씨	?-1585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p. 236.
 연봉매듭	액주름	옆트임		정응두	1508-1572	한국복식, 9, p. 172.
	중치막	옆트임		김여온	1550~1592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73.
	중치막13	옆트임		김확	1572-1633	김확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p. 106.
	도포3	뒷자락		김확	1572-1633	김확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p. 102.
	창의3	옆트임		김확	1572-1633	김확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p. 103.
미확인	액주름	옆트임		이석명	1513-1583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56.
	액주름	옆트임		정휴복	1529-1604	조선시대 액주름의 조형적 특징 연구, p. 132.
	액주름	옆트임		문화유씨	1615-1685	한국복식, 10, p. 129.
	조복	수구		정운	19세기	문화재대관, p. 204.
	조복	수구		완순균	19세기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 138.
	조복	수구		정원용	19세기	문화재대관, p. 138.

고정하여 트임이 쉽게 터지지 않도록 고안한 것이다. 만들이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³¹⁾ 이응해장군(1547-1626) 창의 옆트임과 첼릭의 수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도래매듭은 두 개의 끈을 어긋매겨서 두 층으로 맺은 매듭으로 도리매듭이라 하기도 한다. 강대호(1541-1624)의 액주름 2점의 옆트임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³²⁾ 심수륜(1534-1989)의 주의 옆트임에도 의 도래매듭을 발견할 수 있었다.³³⁾

가락지매듭은 하나의 끈을 겹으로 꼬아 가락지 모양으로 만든 둥근 매듭이다. 벽진이씨(?-1585)의 직령과 액주름에서 옆트임 바로 밑으로 가락지매듭을 달아 장식한 것³⁴⁾을 확인할 수 있다.

연봉매듭은 완성된 매듭의 모양이 연꽃의 봉우리와 같은 것을 의미하며 단추매듭이라고 불기우기도 한다. 복식 유물 중 가장 흔히 발견되는 매듭으로 정응두, 김여은, 김확의 유물에서 총 21점 발견되었다. 정응두(1508-1572)의 액주름에서 옆트임 3cm 아래에 겹으로 된 연봉매듭을 만들어 양쪽을 박음질하여 마무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³⁵⁾ 김여은(157-1633)의 겹수비 중치막에는 좌우 옆트임부분에 찢김 방지를 위한 장식으로 직경 0.5cm의 연봉매듭단추를 달았다.³⁶⁾ 김확(1572-1633)의 유물에 연봉매듭을 이용하여 트임을 보강한 경우를 19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도포의 경우 안길과 뒷자락을 연결하는 진동의 트임 방지와 장식을 목적으로 연봉매듭이 달려있었으며³⁷⁾ 중치막 13점의 옆트임과 창의 뒤트임에서 연봉매듭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매듭단추

트임의 양 쪽에 고리인 암매듭과 단추인 수매듭을 각각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연봉매듭이 가장 흔하여 연봉단추라고도 하며 파리단추, 맺은단추라 하기도 한다.

매듭단추를 이용하여 트임을 보강한 유물은 총 10점 찾을 수 있었다.<표 6>

액주름·방령·도포·원삼·전복·협수·첼릭·동다리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옆트임 보강이 많았으며 뒤트임과 수구에도 사용되었다.

벽진이씨(?-1585)의 액주름은 옆 솔기 위쪽으로 매듭단추와 고리를 달아 벌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³⁸⁾, 조경(1541-1609)의 방령에도 앞길에 고리, 뒷길에 매듭(소실)을 단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강대호(1541-1624)의 경우 도포 2점과 방령, 액주름에서 매듭단추를 찾을 수 있었다. 앞길과 뒤를 쌍밀이 매듭단추로 연결하였는데, 뒷길에는 머리를 앞에는 고리를 달았다.⁴⁰⁾

김확(1572-1633)의 배위 동래정씨의 원삼 옆트임에서도 매듭단추가 있었으며 흥완군(1815-1848)의 첼릭의 경우 수매부리 아래는 막혀있고 그 끝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⁴¹⁾

19세기 전래유물인 동다리는 특이하게 검은 길에 홍색 소매가 달려있다. 옆트임이 있는 자리에 단추 고리가 쌍으로 달려있고 걸쇠와 안선탄 뒤트임과 옆트임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⁴²⁾ 19세기 전복 역시 뒤트임과 앞트임에는 매듭단추와 고리가 있다.⁴³⁾

(3) 박쥐매듭

박쥐매듭은 트임 부분에 힘을 주어서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붙이며 주로 홍색 형짚을 사용하였다.⁴⁴⁾ 박쥐단추, 박쥐장식, 쌍밀이단추⁴⁵⁾, 개밀단추⁴⁶⁾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만드는 방법은 정사각형의 작은 옷감을 양쪽에서 말아 반으로 접고 실로 감아 만든 것으로 박쥐모양이 되도록 사이를 약간 벌려 옷에 부착하며 완성된 형태는 가로 3mm, 세로 5mm 내외의 타원형이다.








박쥐매듭이 트임 보강에 이용된 경우는 총 10점의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표 7> 중치막·원삼·동다리·전복·구군복·구장복·적의·바지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조선 말기 왕실복식이 대부분이다.

수구에 대어 보강과 동시에 예복을 입었을 때 넓은 소매가 뒤틀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옆·뒤트임과 고대부분의 보강에도 사용되었다.

가장 연도가 앞선 진주하씨(?1580-1646) 중치막의 경우 양 옆선이 터져있고 그 위에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박쥐매듭을 달고 있다.⁴⁷⁾

조선 말기 왕실의 예복 수구에 달려있다. 원삼 3점·구장복·적의의 소매에 수구에서 약 19~23cm 내

<표 7> 매듭단추

복식	부분	사진	착용자	생몰년도	출처
액주름	옆트임		백진이씨	?-1585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p. 235.
방령	옆트임		조 경	1541-1609	조경묘출토유의, p. 51.
도포2	옆트임		강대호	1541-1624	한국복식, 23, p. 82, p. 84.
방령	옆트임		강대호	1541-1624	한국복식, 23, p. 86.
액주름	옆트임		강대호	1541-1624	한국복식, 23, p. 90.
원삼	옆트임		김화배 위 동래정씨	1572-1633 ?	김화 합장묘 출토복식, p. 224.
철릭	수구		홍완근	1815-1848	문화재대관, p. 192.
동다리	옆트임 뒤트임		전래유물	19세기	명선 중, p. 106.
전복	옆트임 뒤트임		전래유물	19세기	명선 중, p. 108.

려운 지점에 홍색 박쥐단추로 고정해주었다.

김병국일가(1818-1906)의 구군복의 양 옆선과 뒤 트임에, 윤용구(1853-1936)의 구군복의 경우 고대 양 옆에 박쥐매듭이 달려있다. 또한 왕손 전복의 경우 고대와 어깨부분에 4cm간격으로 5개의 홍색 박쥐매듭을 달았다. 또 양쪽 겨드랑이 부분과 양쪽 무의 하단 끝부분에도 각각 1개씩 4개의 홍색 박쥐매듭을 달았다.⁴⁸⁾

경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연분홍 생고사 단속 곳은 트임 좌우와 앞뒤 중심에 진분홍 박쥐 장식이 달려 있다.⁴⁹⁾

3) 바느질을 이용하는 방법

(1) 사뜨기

사뜨기는 두 면을 연결하는데 쓰이는 튼튼하면서 장식미를 겸한 바느질법이다. 트임 끝 양쪽으로 1~3cm 정도 머리 뺀 것 같은 용마루가 생기도록 곱게 바느질하여 트임을 보강한다. 주로 색실을 많이

사용한다.










사뜨기를 이용하여 트임을 보강한 유물은 총 17점 찾을 수 있었다.<표 8>

바지·액주름·창의·중치막·저고리·담호·전복·협수·조복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옆·뒤트임, 수구, 아귀, 겨드랑이 등의 보강에 사용되었다. 예외적으로 안깃 끝 섹과의 경계 부분에도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뜨기로 바느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수륜(1534-1589) 바지의 경우 아귀부분에 둘레 약 3cm 정도 사뜨기를 하여 트임 부분의 헤집을 방지하였고⁵⁰⁾ 강대호의 액주름은 뒤트임 좌우에 1.5cm 사뜨기를 하였다.

김여은(1550-1592)의 유물에는 사뜨기로 트임을 처리한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창의 경우 뒤트임과 수구 끝 부분. 안깃과 안섶이 만나는 부분에 찢김 방지를 위한 사뜨기가 되어있고⁵¹⁾ 소창의 경우 옆트임과 안깃과 안섶이 만나는 부분에 사뜨기가 3cm 되어있다. 중치막의 경우 총 6점에서 옆트임에 1~2.5cm로 사뜨기로 보강되어있었다. 그 중 3점은

〈표 8〉 박쥐매듭

복식	부분	사진	착용자	생몰년도	출처
중치막	옆트임		진주하씨	?1580-1646	진주하씨묘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p. 99.
원삼	수구		조대비 하사품	1808-1890	문화재대관, p. 64.
구군복	옆트임 뒤트임		김병국일가	1818-1906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보고서, p. 185.
구장복	수구		고충	1852-1919	문화재대관, p. 71.
구군복	고대		윤용구	1853-1936	문화재대관, p. 200.
원삼	수구		순정효황후	1906	문화재대관, p. 37.
적의	수구		순정효황후	1919	문화재대관, p. 50.
원삼	수구		순정효황후	1919	문화재대관, p. 41.
전복	겨드랑이, 고대 뒤트임, 옆트임		왕손복	1922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p. 268.
바지	아귀		전래유물	20세기 초	조선시대여인의멋과차림새, p. 201.

겨드랑이에도 사뜨기가 되어있었으며, 1점은 수구도 보강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 그 외에 옆트임 저고리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최원립(1618-1690) 협수 뒤트임 부분에 0.4~0.5cm를 사뜨기 하였으며⁵²⁾ 전복 역시 진동 아래 끝점과 옆트임·뒤트임의 위쪽 끝점에 사뜨기를 하여 보강하였다.⁵³⁾ 이 둘은 활동이 많은 무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위의 트임 처리를 하였으며, 사뜨기와 같이 튼튼하면서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정씨(1574-1669)의 답호 2점에서 겨드랑이 밑을 각각 5cm와 7cm정도를 겹사뜨기 한 것이 발견되었다.⁵⁴⁾ 정재후(1624-1695)의 중치막 수구의 끝에는 트임을 막기 위한 사뜨기 장식이 확인되며⁵⁵⁾ 이익정의 조복 수구에도 중심에서 2.8cm 너비만큼 사뜨기로 고정하였다.⁵⁶⁾

(2) 상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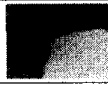





트임 둘레를 상침질하여 보강하는 방법이다.

상침질을 이용하여 트임을 보강한 유물은 총 7점 찾을 수 있었다.〈표 9〉 대부분 옆트임 저고리이며 도포·중치막의 수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옆트임 저고리의 경우 대부분이 누비나 솜저고리였다. 트임의 가장자리를 약 0.5~1cm 정도 안쪽으로 둘러 상침질을 하므로 트임을 튼튼하게 보강하며 숨이나 안감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온박음질 또는 촘촘한 흠질로 바느질하였다.

옆트임 외에 수구 부분을 상침한 경우도 있다. 정재후(1624-1695)의 중치막의 경우 수구 둘레 전체를 상침하였으나 김확(1572-1633)의 도포는 트임의 끝부분에만 상침질하였다.⁵⁷⁾

〈표 9〉 사뜨기

복식	부분	사 진	작 용 자	생물년도	출 처
바지	아귀		심수륜	1534-1689	심수륜묘 출토복식, p. 155.
액주름	뒤트임		강대호	1541-1624	한국복식, 23, p. 88.
창의	뒤트임 수구 깃아래		김여운	1550~1592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67.
중치막3 저고리	옆트임		김여운	1550~1592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75, p. 77, p. 83, p. 99.
중치막2	옆트임 저드랑이 수구		김여운	1550~1592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81, p. 89
중치막	옆트임 저드랑이		김여운	1550~1592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87.
소창의	옆트임 깃아래		김여운	1550~1592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97.
답호 2	옆트임		동래정씨	1574-1669	한국복식, 8, p. 95, p. 96.
전복	옆·뒤트임 진동아래		최원립	1618-1690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 34.
협수	뒤트임		최원립	1618-1690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 22.
중치막	수구		정재후	1624-1695	동래정씨묘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p. 182-183.
조복	수구		이익정	1699-1782	한국복식, 19, p. 96.

(3) 실고리

고리는 굵은 실로 몇 차례 정귀 만들거나 불리언넛 스티치(bullion knot stitch)과 같이 실 루프를 만들기도 하여 트임 양옆에 고정한다.

고리가 트임 보강에 이용된 경우는 총 6점의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표 10〉

바지·창의·원삼·직령·조복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아귀, 옆·뒤트임의 보강에 이용되었고 소매의 경우

박쥐단추의 역할과 같았다. 특히 이응해의 창의의 경우 자락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였다.







연안김씨(16세기)의 마포 단속곳의 아귀에는 다른 바지와 달리 바대가 없으며 0.1cm 시접을 말아 감침하였다. 아귀 끝에서부터 1.5cm는 막혀있으며 연결을 루프처럼 실을 꼬아서 장식하였다.⁵⁸⁾

이응해(1547-1626)의 겹창의는 뒤트임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삼각형 당을 대어 뒷자락이 벌어질 때 등

<표 10> 상침질

복식	부분	사진	착용자	생몰년도	출처
저고리	옆트임		장기정씨	1565-1614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p. 62.
저고리	옆트임		김확	1572-1633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p. 213.
도포	수구		김확	1572-1633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p. 178. 부분상침
저고리	옆트임		평산신씨	16세기	금선단 치마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p. 102.
저고리	옆트임		진주류씨	16세기중후반	진주류씨합장묘출토복식, p. 141.
저고리	옆트임		고봉상	임난전후	제주고씨선산분묘출토복식연구, p. 125.
중치막	수구		정재후	1624-1695	동래정씨묘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p. 182-183.

<표 11> 실고리

복식	부분	사진	착용자	생몰년도	출처
바지	아귀		연안김씨	16세기	연안김씨묘출토복식, p. 256.
직령	옆트임		신지정	1519-1528	한국복식, 17, p. 66.
직령	옆트임		이언충	1524-1582	한국복식, 20, p. 13.1
창의	뒤트임		이응해	1547-1626	이응해출토복식의 직령포와 창의에 관한 연구, p. 62.
조복	수구		김병국	1819-1933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보고서, p. 175.
원삼	수구		광화당	1887-1970	문화재대관, p. 42.

술이 더 터지지 않도록 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뒤트임의 일부는 굽은 실고 호아서 두루막힌 형태를 갖게 하였는데, 이는 보행 시 뒷자락이 휘날리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무릎 좌우에 달았기 때문에 보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⁵⁹⁾

신지정(1519-1528)의 홀 직령의 경우 옆선을 중심 아래로 29cm/33cm 트고 사이에 가는 고리로 앞뒤를 연결시켰고⁶⁰⁾ 이언충(1524-1626)의 직령 역시 옆트임선 부위에 3cm 길이의 연결장식이 붙어있는 것⁶¹⁾이 확인되었다.

고종의 후궁 광화당(1887-1970)의 원삼은 수구아래 23cm 지점을 박쥐매듭 없이 바느질로 징귀 놓았으며,⁶²⁾ 김병국 조복의 넓은 수구도 중간중간 징귀져 있었다.⁶³⁾

2. 트임 처리의 효과

1) 내구성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트임은 동작하기 불편한 위치를 절개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마찰과 장력에 의해 트임이 마모되거나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트임의 훼손은 의복 전체의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의 증가를 목적으로 트임 끝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선·바대를 대는 것, 각종 매듭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사뜨기·상침질·실고리 등 본문에 제시된 모든 보강 방법이 트임의 내구성 증가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2) 신축성

신축성은 물체 즉 옷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을 의미한다. 트임에 신축성을 가하면 장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트임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당과 선을 대는 것이 있다.

입고 벗을 때 힘을 많이 받는 바지의 아귀에 당을 댄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성상 당이 어순올(바이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귀를 잘 벌어지게 할 뿐 아니라 힘반이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 뿐 아니라 선을 대는 경우도 어순올을 사용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장식성

전통 바느질 방법의 우수한 점 중 하나는 실용적인 목적에 장식성을 부여하는 감각에 있다. 트임의 보강도 본래 목적은 내구성의 증가이나 미감과 솜씨를 더하여 아름답게 만든 정성이 돋보인다 하겠다.

속바지 아귀에 선을 댄 때에도 속옷이라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감 보다 남색·홍색·옥색 등 색

선을 둘러 꾸민 것을 볼 수 있었다.

트임 끝에 매듭 없는 끈이나 한 번 묶음을 준 윗매듭을 달아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여기에도 정성을 담아 도래매듭·가락지매듭·연봉매듭·박쥐매듭 등 다양한 매듭을 작고 단단하게 맺어 부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감이 아니라 자색이나 홍색의 옷감을 사용하여 악센트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단정미

트임은 행동에 불편을 덜고자 만들어졌으나 이로 인하여 옷자락이 과하게 날리거나 속옷이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매무새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보강을 한 유물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액주름이나 직령의 경우 옆트임 끝에서 약간 내려온 지점에 매듭이나 단추를 달아 자락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도포의 경우에도 뒷자락과 옆선을 매듭이나 단추로 고정하여 뒷자락이 휘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윽해 창의를 경우도 뒤트임의 2군데를 실고 호아서 두루막힌 형태를 갖게 하였는데, 모두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차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궁중 예복의 경우 소매가 매우 넓고 길다. 움직임으로 인해 소매가 틀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수구 중간부분을 보완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구장복·적의·원삼·조복 등의 수구에서 19~20cm 내려온 지점에 매듭 또는 박쥐매듭을 달거나 사뜨기를 하거나 실고리를 만들어 항시 단정한 차림새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VI.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트임의 보강 바느질 기법에 대한 연구로 출토 또는 전래되어온 조선시대 복식 중 55인의 복식 117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2〉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트임의 보강방법

트 임 처리 방법	복식의 종류	트임 처리	위 치							효 과	
			옆	뒤	아귀	수구	겨드 랑이	고대	기타		
옷감	당	바지 단속곳 방령 창의	25	•	•	●●●●● ●●●●● ●●●●● ●				••	내구성 신축성
	선	바지	13			●●●●● ●●●●● ●●●					내구성 신축성 장식성
	바대	저고리	1	•							내구성
매듭	매듭	조복 직령 첩릭 창의 중치막 주의 도포 액주름	34	●●●●● ●●●●● ●●●●● ●●●	●●●		●●●●				내구성 장식성 단정미
	매듭단추	액주름 도포 방령 원삼 첩릭 등다리 전복	12	●●●●● ●●●●	●●		•				내구성 장식성 단정미
	박쥐매듭	바지 전복 창의 중치막 구군복 구장복 적의 원삼	14	●●●	●●	•	●●●●●	•	●●		내구성 장식성 단정미
바느질	사뜨기	중치막 협수 답호 전복 저고리 바지 창의 액주름 조복	27	●●●●● ●●●●● ●	●●●●	•	●●●●●	●●●●		••	내구성 단정미
	상침질	저고리 도포 중치막	7	●●●●●			●●				내구성
	실고리	창의 직령 바지 조복 원삼	6	●●	•	•	●●				내구성 단정미
계		20 종류	139	59	13	37	19	5	2	4	

1. 조선시대 복식은 대부분 트임이 존재하며, 트임은 옷 입기 위한 기능과 좌식·보행·용변 등 일상생활 동작의 편의를 돕는 기능이 있었다. 트임의 위치는 의복의 옆선·뒤 중심선·아귀·수구·겨드랑이·고대 등에 있었으며 드물게 사복바지와 무복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

2. 트임은 특성상 파열이 쉽기 때문에 보강바느질한 유물들이 많았다. 조선시대 복식 총 117점에서 139건 발견할 수 있었다. 남녀 바지·저고리와 같은 기본복식으로부터 구장복·적의·원삼·조복 등 궁중예복, 직령·창의·중치막·첩릭·액주름·도포·주의·협수·등다리·구군복 등의 포와 방령·답호·전복 등 덧옷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복식 전반(全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강이 된 트임의 위치는 옆트임·뒤트임·아귀·수구·겨드랑이·고대 등이었다.

3. 트임을 보강한 방법으로는 크게 당·선·바대 등 옷감을 덧붙이는 방법과 각종 매듭 및 매듭단추 그

리고 박쥐매듭 등 매듭을 이용하는 법, 그리고 사뜨기·상침질·실고리 등 바느질로 보강하는 법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4. 매듭을 이용한 보강방법이 총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뜨기 27건과 당을 이용한 방법이 25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트임 위치로는 옆트임이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귀가 37건, 수구가 19건, 뒤트임이 13건 순이었다.

5. 이렇게 트임을 보강하므로 내구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신축성과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트임 자락이 벌어지거나 날리는 것을 막고 소매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단정한 매무새를 갖도록 돕는 역할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유물을 통하여 트임의 보강 방법을 고찰하였다. 출토복식 등을 통해 앞으로 발견될 더 많은 자료를 정리하여 섬세하고 실용적인 우리 전통 부분 바느질법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과제로 남긴다. 아울러 트임 보강 바느질 방법이 현대 한복과 나아가 패션산업에서 디자인 모티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금중숙 (2003).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6). *광주출토 조선전기 적성이씨(여, 1458~1538) 저고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공화 (2004). *조선시대 단령의 착용규례와 실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지혜(2001). *조선시대 광주·전남지역 출토 철릭에 관한 연구: 15-17세기 철릭의 구성과 바느질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숙 (200) *김덕령장군 묘 출토복식의 실태와 바느질법 연구*.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11.
- 안인실 (2001). *조선시대 여자바지 연구 : 유물의 구성과 복원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자 (1992). *16-17세기 저고리의 바느질기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황조 (2006). *조선시대 액주름의 조형적 특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우 (2001). *출토복식을 통해본 17세기 봉제구성 - 임경백, 임계백 묘 중심 - 복식, 51(1)*.
- 장인우 (2002). *조선중기 솜철릭 구성에 대하여*. 복식, 52(8).
- 정경임 (2003). *고려후기 요선철릭에 관한 연구 : 해인사 유물 부원 재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광희 (1984). *단령 및 창의 봉제에 관하여*. 복식, 8.
- 진현자 (2007). *조선 전기 단령의 모양 및 바느질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의 다수
- 2) 다음국어사전 검색어:트이다.
자료검색일 2008. 4. 26. 자료출처 <http://krdi세기.dau.ac.net/dickr/contents.do?offset=A040093900&query1=A040093900#A040093900>
- 3) 다음영어사전 검색어:트이다.
자료검색일 2008. 4. 26. 자료출처 http://engdi세기.dau.ac.net/dicen/view_detail.do?q=%세기6%AE%0%세기세기%B4%D9&qalias=K856530
- 4) 라사라 복식대사전
- 5) 심수륜 (1534-1589: *심수륜묘출토복식* (2004), p. 198)의 주의 등 일부 주의에서 트임이 발견되기도 한다.
- 6) 옆트임 액주름: 정응두(1508-1572: *한국복식 9* (1991), p. 172) 이석명(1513-1583: *이석명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2000), p. 56) 벽진이씨(?-1985: *조선전기출토복식 연구* (1988), p. 235) 강대호(1541-1624: *한국복식 23* (2005), p. 86, p. 90, p. 92, p. 96) 문화유씨(1615-1685: *한국복식 10* (1992), p. 129) 등.
뒤트임 액주름: 강대호(1541-1624: *한국복식 23* (2005), p. 88)
- 7) 이익정 바지(1699-1782: *명선 중*, p. 154). 개구멍바지 (*우리옷과 장신구* (2003), p. 271) 등
- 8)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명선 중*. 서울: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p. 154.
- 9) 영친왕 바지 (1922: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2002), pp. 244-245)
- 10) e뮤지엄 검색어:원삼.
자료검색일:2008. 4. 20. 자료출처 <http://www.emuseum.go.kr/pages/portal/search/full.jsp?dbNoArr=3&docNo=00117405>
- 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조선시대풍속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 198.
- 12) 김정자 (1998). *한국군복의 발달사 연구*. 서울: 민속원, p. 300.
- 13) 국립민속박물관 (2002). *앞의 책*, p. 209.
- 14) 안능신영도(국립중앙박물관소장). 수감계첩(국립중앙박물관소장). 신윤복의 연소담청(간송미술관소장) 등
- 15) 가랑이: 이익정 바지(1699-1782: *명선 중* (2004), p. 154)
사복선: 영친왕 솜부디 2벌(1897-1970: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pp. 38-39) 등
- 16) 이경자 외2인 (2003). *우리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p. 271
- 17) 박성실, 고부자 (1992). *서울시 하계동 출토 문화유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0.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130.
이동아 (2006). *이응해 출토복식의 직령포와 창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2.
이순원 외2인 (2000). *이석명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박물관, p. 68.
- 18)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122.
- 19) 송미경 (2004) *심수륜묘 출토유물 복식고찰*. 심수륜출토복식. 경기: 경기도박물관, p. 122.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지사, p. 358.
- 박성실 (1988).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9.
- 20) 이순원 외2인 (2000). *앞의 책*, p. 61.
- 21) 이상은 (2004). *이응해 출토복식 연구*.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충북: 국립충주박물관, p. 149.
- 22) 경운박물관 (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서울: 경운박물관, p. 78.
- 23) 박성실 외2인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200.
- 24) 경운박물관 (2003). *앞의 책*, p. 78.
- 25) 고부자 (2003). *충남 예산 출토 파평윤씨 유물연구*. 한국복식, 21.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100.
- 26) 이경자, 흥나영 (1998). *개성복식의 연구*.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서울: 현암사, p. 113.
박정은 여사 증언 재인용
- 27) 박성실 (1998).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서울: 현암사, p. 93.
- 28) 이은주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

- 글조사 보고서, 경북: 안동대학교박물관, p. 200.
- 29) 김여은 증치막, 김화 도포·창의, 정은·완순군·정원용 조복 등
 - 30) 이석명의 경우 '매듭장식', 문화유씨와 정휴복의 경우 '매듭단추'라 설명되어있다. 정은·완순군·정원용의 조복은 사진 상으로 확인될 뿐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 31) 김영재 (2004), *이응해* 출토복식의 바느질법과 특성,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충북: 국립충주박물관, p. 163.
 - 32) 고부자 (2005), 경기도 파주 출토 진주강씨 유물, *한국복식*, 23,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96.
 - 33) 송미경 (2004), *앞의 책*, p. 171.
 - 34) 박성실 (1988), *앞의 책*, p. 236.
 - 35) *위의 책*, p. 172.
 - 36) 이은주 외2인 (2005),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p. 73.
 - 37) 송미경 (2007), 김확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포에 관한 연구, *복식*, 57(7), p. 102.
 - 38) 박성실 (1988), *앞의 책*, p. 235.
 - 39) 서울역사박물관 (2003), *조경묘출토유물*,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p. 51.
 - 40) 고부자 (2005), *앞의 책*, p. 85.
 - 41)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 192.
 - 42)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2004), *앞의 책*, p. 106.
 - 43) *위의 책*, p. 108.
 - 44) 한국복식문화사전, 검색어:개밀단추, 자료검색일 2008. 5. 22, 자료출처 <http://gate.dbmedia.segi.or.kr/dressing/index.htm>
 - 45) 쌍밀이단추에 대하여 유희경,김미자는 진주하씨 창의 (*진주하씨묘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1991), p. 99)에서 '박쥐매듭'으로 설명하였고, 고부자는 조경방령 (*조경묘출토유물* (2003), p. 51)과 강대호 도포 (*한국복식*, 23 (2005), p. 85)에서 '쌍밀이매듭끈으로 만든 매듭단추'로 설명하고 있다.
 - 46) 유희경 외2인 (1989), *염습의*,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 보고서, 충남: 온양민속박물관, p. 185.
 - 47) 유희경, 김미자 (1991), *출토복식*, *진주하씨묘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진주: 진들바우박물관, p. 99.
 - 48) 김영숙 (2002),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서울: 신유, p. 268.
 - 49) 박성실 외2인 (2005), *앞의 책*, p. 200.
 - 50) 송미경 (2004), *앞의 책*, p. 155.
 - 51) 이은주 외2인 (2005), *앞의 책*, p. 67.
 - 5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p. 117.
 - 53) *위의 책*, p. 126.
 - 54) 고부자, 박성실 (1995), *경주출토 동래정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8, pp. 95-96.
 - 55) 이은주 (2003), *동래정씨 흑곡공일가 남자묘에서 출토된 복식류*,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 경기도박물관, pp. 182-183.
 - 56) 고부자 (2001), *충남 예산 출토 파평윤씨 유물 연구*, *한국복식*, 21,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96.
 - 57) 송미경 (2007), *김확합장묘 출토복식 연구*, *김확합장묘 출토복식*, 경기: 경기도박물관, p. 178.
 - 58) 송미경 외3인 (2005), *연안김씨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연안김씨묘출토복식*, 경기: 경기도박물관, p. 256.
 - 59) 이상은 (2004), *앞의 책*, p. 149.
 - 60) 고부자 (1999), *일영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7,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66.
 - 61)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성주이씨 대사헌 공 언응묘 복식고찰*, *한국복식*, 20,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131.
 - 62) 문화재청 (2006), *앞의 책*, p. 45.
 - 63) 유희경 외2인 (1989), *앞의 책*, p. 185.